

우리의 **국제 사역**

큰은혜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ESTEFANI	CAMILA	EMELY
GENESIS	NANCY	JENNSY	GAEL
JOSUE	ROBERTO	LIA	OSCAR
LUIS	YEFERSON	ORIANA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육관

MISSION STATEMENT

W.O.R.L.D. VISION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뉘를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임목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육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종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제 5호 23권		Vol. 5 No.23		6.7.2026	
여는 기도		이중록 전도사			
Opening Prayer		Jungrock Lee			
경배와 찬양		다같이			
Worship and Praise		Together			
대표 기도		김수경 성도			
Representative Prayer		Soo Kyung Kim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담임 목사	
Sermon		사도행전 1장 1~11절		Senior Pastor	
합심 기도		다같이			
United Prayer		Together			
성찬		보혈을 지나		다같이	
Communion				Together	
봉헌 및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Offering				Together	
광고		담임 목사			
Announcements		Senior Pastor			
* 찬양		삼중 축복		다같이	
Blessing Song				Together	
축도		담임 목사			
Benediction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7			
* Please stand					

기도 순서

	6/7	6/14	6/21	6/28	7/5
1부	—	이중록	김용현	김승연	—
2부	김수경	김대환	문하영	김예원	주보배

1. 성찬 예배

이번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주일 1부 예배 안내

6월 14일(주일)부터 오전 9시에 1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비전 트립

일시: 6월 말
장소: 시애틀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드릴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셀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6월 생일

1일 장승현 성도
17일 김영미 권사
18일 문하영 성도

6월 성찬위원

김용현, 김아론, 김대환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요한복음 19:17-30	요한복음 19:31-42	요한복음 20:1:10	요한복음 20:11-18	요한복음 20:19-23
Grace Kim	Sam Kim	이중록	임성호	Sam Kim

6.7.2026

골목길 공동체

초고속 인터넷, 문 앞까지 몇 시간 만에 배달되는 택배,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SNS.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서 우리는 철저히 파편화된
개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삭막함과 외로움 끝에, 최근 흥미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
고 있습니다. 차갑고 규격화된 대형 쇼핑몰 대신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찾
고, 거대 플랫폼 대신 동네 기반의 작은 커뮤니티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시 ‘로컬(Local)’과 ‘골목길’을 주목하는 걸
까요?

<느슨하지만 따뜻한 골목길>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연결되기를 갈구합니다. 과거의 전
통적인 지역 공동체가 끈끈하다 못해 다소 숨 막히는 간섭이었다면, 현대
인들이 골목길과 로컬에서 찾는 공동체는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대’에 가
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골 카페 사장님이 건네는 “오늘도 아이스 아메
리카노 맞으시죠?”라는 짝막한 인사, 동네 독립서점에서 마주치는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 이러한 사소한 접촉들은 거대한 도시에서 내가 지워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미국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는 그의 저서 《제3의 장소
(The Great Good Place)》에서 가정(제1의 공간)도, 직장(제2의 공간)도
아니지만 격식 없이 사람들과 교류하며 위안을 얻는 공간, 즉 ‘제3의 공간’
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에게는 동네 골목길이
제3의 장소가 되고 있고, 그곳이 고독을 치유하는 정서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딩’의 가치>

이러한 심리적 갈망은 자본과 비즈니스의 영역으로도 이어져 최근 ‘로컬
브랜딩(Local Branding)’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어디를 가
나 똑같은 프랜차이즈 간판과 대형 마트는 편리하지만 지루해졌습니다.
반면, 그 동네의 역사와 기후,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녹아든 로컬 브랜드들
은 대기업이 흉내 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방을 고쳐서 만든 카페, 목욕탕을 개조해 만든 문화 공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독창적인 디저트를 선보이는 동네 빵집까지.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골목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정
체성을 소비합니다. 로컬 브랜딩은 낙후되던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적 대안을 넘어, 대도시의 획일성에 피로감을 느낀 현대인들에게 신
선한 문화적 해방구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